

동덕여자대학교 학생회관 증축설계

Dongduk Women's University Student's Hall



이 필 훈 / 정회원, 정림건축 대표
 Lee, Pil-Hoon / Chairman, Junglim Architecture
 pilhoon.lee@junglim.com

1. 들어가며

동덕여대 학생회관을 정립에 취임하기 전 태두건축을 운영할 때 설계한 건물이다.

지명현상 방식을 통해 설계지명을 받은 후 동덕여대를 찾았다. 프로젝트는 '동덕여대 학생회관 신축설계'였다. 대지 위에는 사용되고 있는 학생회관 건물이 있었다. 비록 내부가 폐가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었지만 70년대 손으로 비벼 친 노출콘크리트 건물은 단단한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요즘 의미 없이 비틀리고 잔뜩 화장을 한 건물들에 비해서 골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건강한 건물이었다. 한편으로 철거하는데 들일 과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폐자재의 대량 배출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기존 건물의 규모가 3,000㎡이고 신축할 건물의 규모는 5,000㎡인데 주차장 면적으로 1,300㎡ 가까이가 필요하니 결국 700㎡ 그러니까 약 2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60억의 예산을 소요하는 셈이었다. 리모델링의 방향으로 가면 주차장법이 없을 때 지어진 기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용도가 학생회관이기에 실제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도 없다. 결국 증축되는 면적에 대한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리모델링 및 증축의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기에 20억 정도의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생겼다.

학교에서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지명현상공모를 진행했는데 증축설계의 안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학교의 입장도 그렇고 지명을 받은 경쟁사들이 지침위반이란 점을 항의하면 혹 당선이 되더라도 설계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명현상이기에 안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학교 측이 이야기를 듣고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설계의 방향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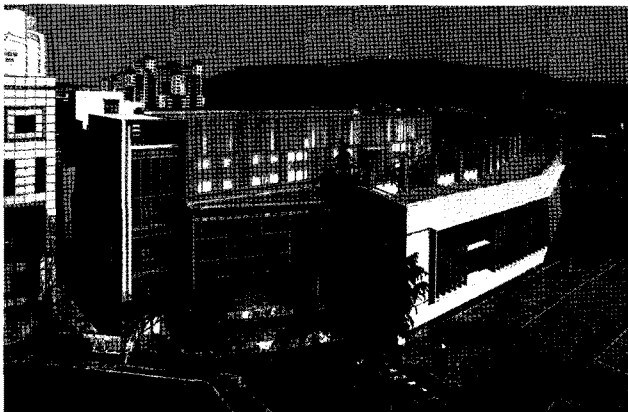


그림 1. 동덕여대 학생회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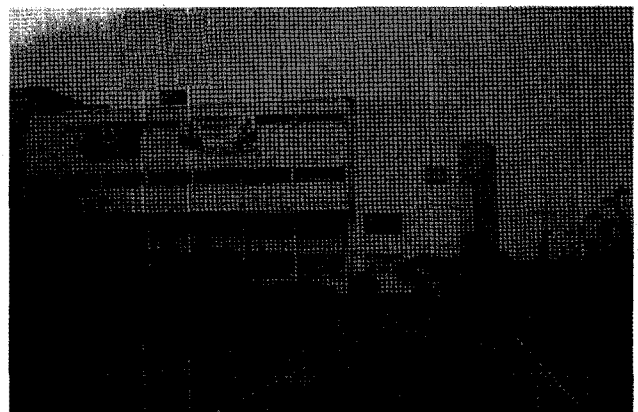


그림 2. 기존건물

표 1. 건축 개요

구분	설계내역	비고	
건물개요	명 칭	동덕여자대학교 학생회관 신축설계경기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1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2,805M ² (학교전체)	
	도로현황	서측 부지내 8M 연결도로	
	연 면 적	5,123,54M ² (1,549.87평)	
	건축면적	1,640,25M ² (496.17평)	
	건 폐 율	단지전체적용	기존면적별도
	용 적 율	단지전체적용	기존면적별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층 수	지상 5층, 지하 1층	
	최고높이	20.55M	
외부마감	커튼월, 적삼목사이딩, 금속유공판		
설비개요	GHP 시스템(냉난방 겸용)		
주차개요	지하 16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조경개요	학교내 조경		
기타사항	장애인 전용 승강기 1대 설치		

30년 이상 사용한 건물에 대한 학생들의 기억-친환경적인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졸업생과 학생들의 학생회관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보존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어 낙선을 각오한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나무를 고른다는 것 그리고 그 나무로 집을 짓는 일은 1,000년의 수명을 가진 나무를 골라 건축재료로 1,000년을 더 설계 만드는 일이다.’ 일본의 왕궁목수가 쓴 글귀이다.

건물도 수명이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자신의 수명을 다하게 하는 일은 이 시대의 건축가가 가져야 할 자세라 생각한다.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설계방향을 정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설계의 개념들을 세웠다.

2. 길 보존하기 - 외부에서 내부로

건물은 구조적 문제와 법적문제(도로사선제한)로 수직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생회관 앞에는 경사진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운동장 하부의 지하 강의실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선이었다. 기능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으로 이 길을 보존하려면 운동장 상부에 증축부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장 하부에 건물이 있어 쉽게 기둥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 건물이 증축부분을 들고 있는 캔

틸레버 구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기존 건물과 증축공간 사이의 길은 아트리움이 되고 길의 경사는 그대로 유지되어 원래의 흔적을 유지한다. 외부의 길이 내부의 길이 되고 기존의 건물과 증축 건물이 이 길의 양편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운동장 하부의 강의실과 학생회관이 연결되며 이 길 주변에 레벨이 다양한 휴게공간들이 마련되는 구조가 된다.

3. 프로그램의 변경

현상설계가 늘 그렇듯 프로그램을 드러다 보면 전용공간의 면적으로 가득 차 공용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일은 비전문가의 손에 달려있다. 공용공간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면 복도에 방들을 배열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건물의 표정을 풍부하게하며 소통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만들어 내려면 주어진 프로그램을 조작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실의 면적을 바꾸면 이 역시 지침위반으로 감점과 탈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림 3. 내부모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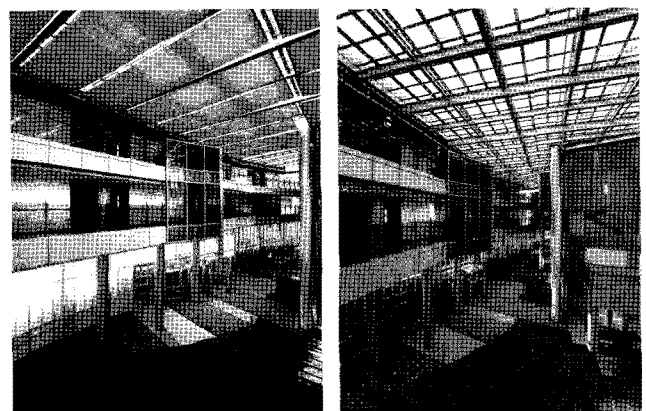


그림 4. 내부모습 2



그림 5. 외부 진출입부 1

주어진 프로그램에는 대형 강의실이 있었다. 강의실의 규모로 인해 공용공간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학교의 모든 건물들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대형 강의실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회관 인근에 대형 강의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방학 동안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들을 통해 서울 시내의 주요 여자대학 학생회관들의 내부공간들을 조사하고 여학생들을 상대로 학생회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양케이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으로 꼭 필요한 동아리실의 개수와 학생회실의 개수를 조사하고 지키면서 전용공간들의 면적을 조정해 여유 있는 공공공간을 확보했다. 일단 주차장 면적이 제외됨으로 인해 충분한 공유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는 대형 강의실을 없애는 무모한 금 밟기를 시도했다. 1980년대 모 대학이 수 천평 규모의 건물을 설계하고자 근무하던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설계 전에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일도 업무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의 모든 강의실들의 수와 규모를 확인하고 모든 학과의 시간표를 확인해 강의 시간에 따라 강의실에 배치해 보는 모의실험을 해보야 필요한 시설의 프로그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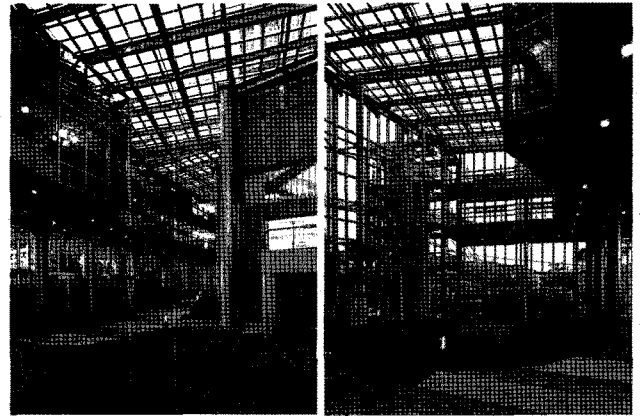


그림 6. 외부 진출입부 2

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 참 지독히도 힘든 과정이었다. 그 덕에 대학교의 시설과 커리큘럼 그리고 공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결론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했고 과별로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단혀져 있는 구조로 인해 공간의 낭비가 너무 심했다.

설계 프로젝트가 날아갈 상황이라 소장님께 심한 꾸지람을 듣고 학교 측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건축가가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일 - 이 일이 독특한 한국적 상황에서 독특한 건축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다.

4. 당선 그리고 DD & CD(Design Development & Construction Documentation)

신축지침을 어기고 증축으로 설계안을 제출한 후 심사



그림 7. 계단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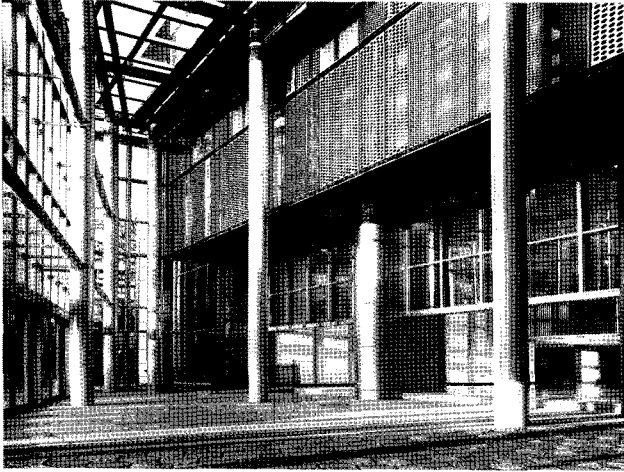


그림 8. 새로운 기둥

작되었다. 골조의 상태가 생각했던 만큼 좋지 않았다. 건물의 외벽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리모델링에 사용될 마감 재료의 선택 폭도 매우 좁았다. 마감 재료는 가능한 한 가벼운 재료로 편칭메탈로 결정했다. 편칭메탈의 구멍 뒤로 옛 건물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건물전체의 단열 상태가 안 좋아 외 단열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한편, 기존건물의 내부에 심하게 낙서되었던 벽들을 판으로 떼어내 보관했다가 계단실의 벽에 붙여놓는 것으로 이전의 기억들을 환기시키도록 배려했다.

기존건물에서 증축건물을 잡는 방식으로 생각했던 구조 해결방식은 기존건물의 기둥이 약하다는 구조기술상의 의견으로 인해 새로운 기둥들을 세워야 했고 5M가 넘는 캔틸레버 구조 역시 Buttress를 받쳐야만 한다는 의견에 의해 날렵한 느낌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발생하는 기술력의 부재는 둔한 느낌의 건물을 만들어낸다. 한편 낮은 공사비에도 디테일을 놓칠 수 없어 편칭메탈의 구멍크기를 조절해서 입면의 리듬을 만들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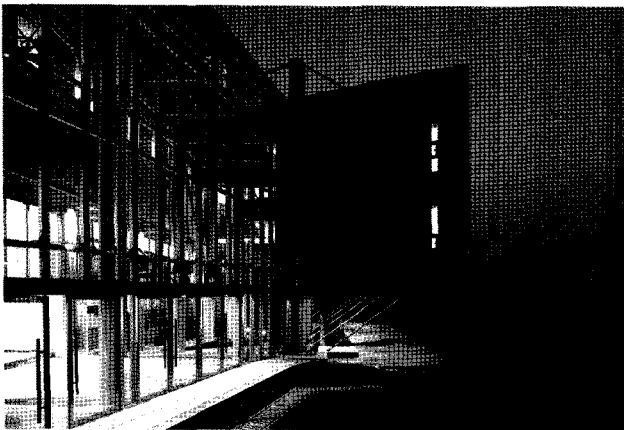


그림 9. 캔틸레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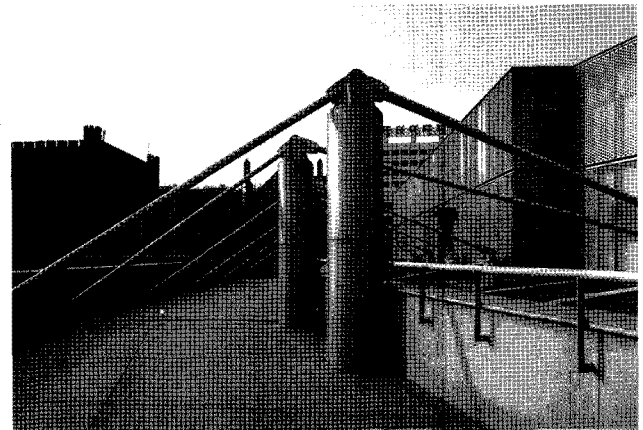


그림 10. 증축부분 Wiring

위원들 앞에서 발표가 있었다. 늘 그렇듯 내가 당선되면 공정한 심사고 다른 회사가 당선되면 불공정한 심사라는 불평을 하게 된다.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축설계에 증축 안을 선정했으니 불공정한 심사였다. 그런데 경쟁에 참여했던 타 회사들이 당선된 안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어서 당선되어도 계약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불식되었다.

실시설계를 위해 기존건물을 살살이 조사하는 일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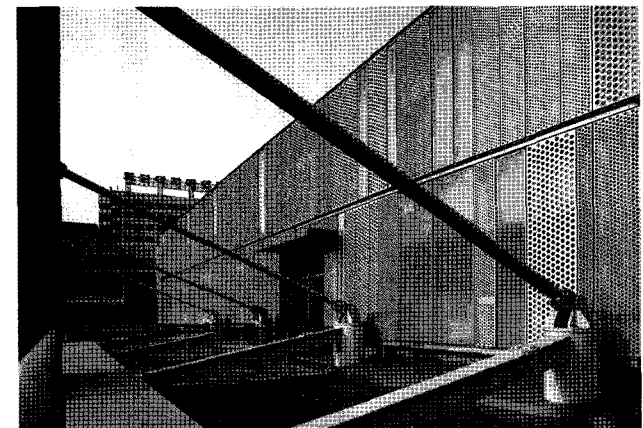


그림 11. 편칭메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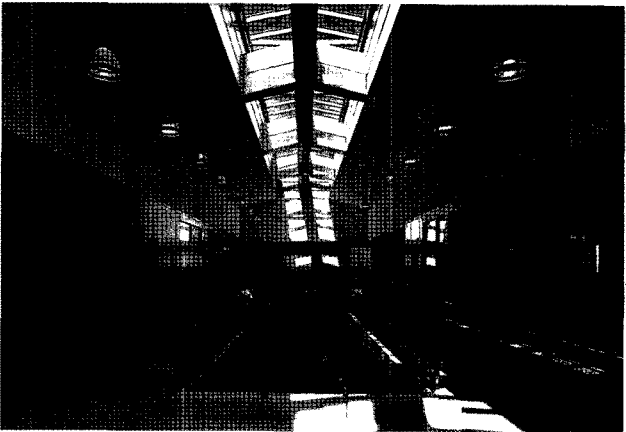


그림 12. 기존체육관에 중층을 걷고 천장을 만든다

기 위해 수많은 패널들을 시공현장에 걸어놓고 수시로 둘러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했다.

건물에 대한 애정과 집중력을 놓는 순간 건물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5. 남은 이야기들

학교 측에서 생각했던 학생회관에 대한 그림을 지우고 건축가가 생각하는 그림을 제안했는데 그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건물이 지어졌다. 현상설계를 시작할 당시 학교 내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투명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계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프로젝트였지만 상주감리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건물의 구석구석을 챙길 수 있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다.

결국 60억 예산으로 시작한 건물을 예상했던 바와 같이 40억에 마감할 수 있게 되어 건축주 입장에선 무엇보다 좋은 일이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기존건물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의 가능성을 알게 되어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들

을 계획했다. 그러나 학교 내의 내분으로 집행부가 바뀌는 바람에 설계를 끝내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생겼다.

학교 측으로 보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각종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건물을 갖게 되었음에도 새로운 집행부는 결국 신축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는 시빗거리를 만들어 한동안 이런저런 조사를 진행했었다. 가끔 오가는 길에 건물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을 둘러볼 때마다 동덕여대 학생회관은 시대의 거울이 아니라 이 건물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의 거울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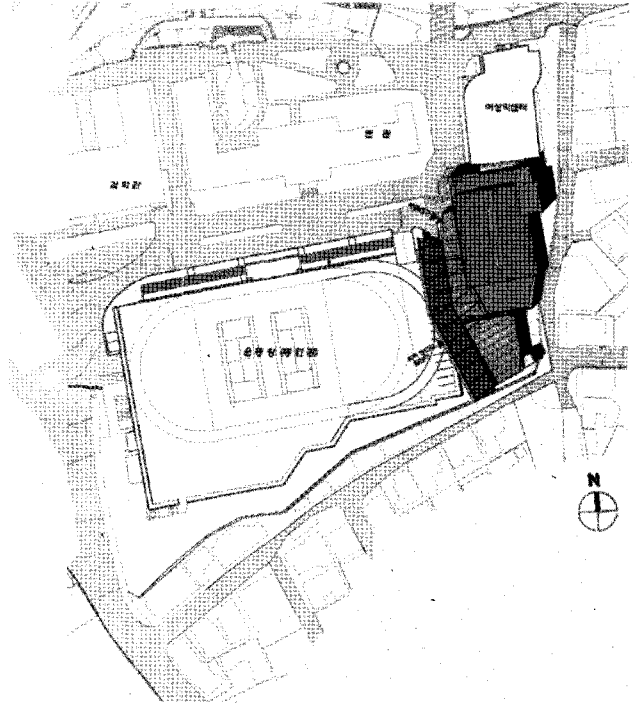


그림 13.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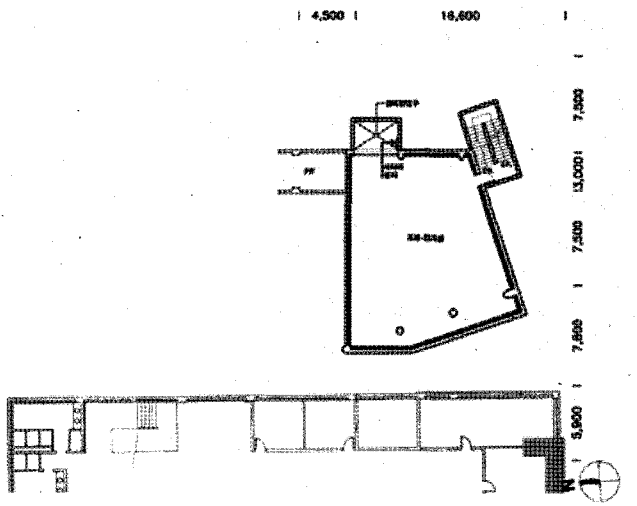


그림 14.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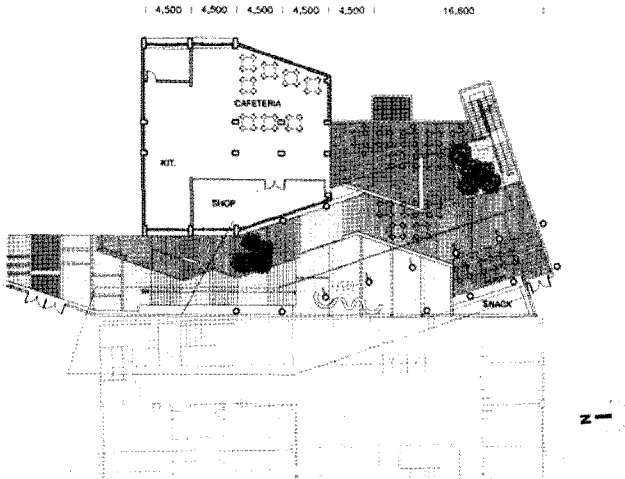


그림 15.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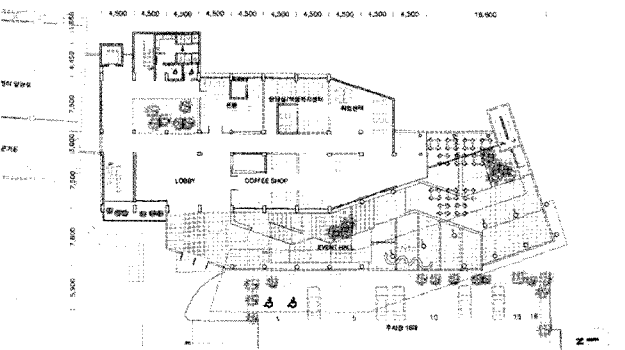


그림 16.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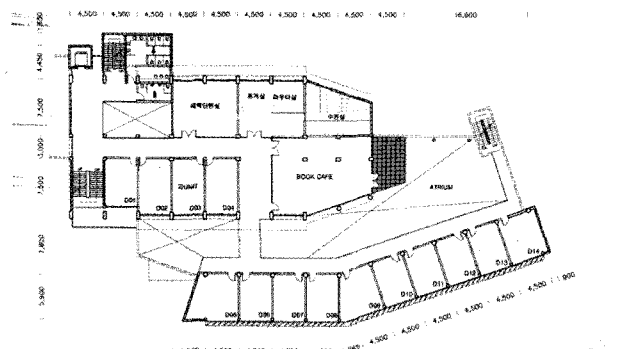


그림 17.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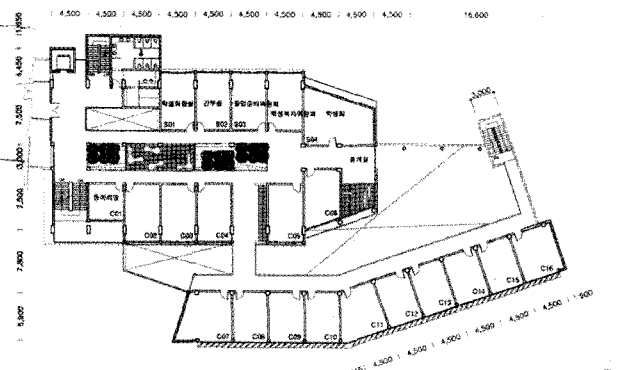


그림 18.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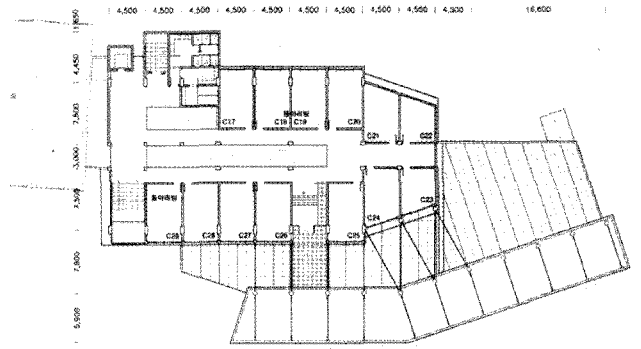


그림 19.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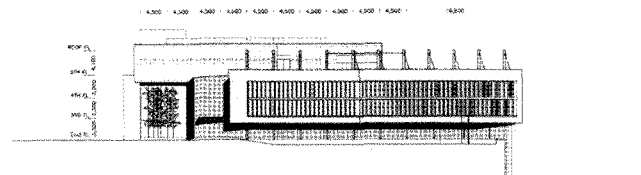


그림 20.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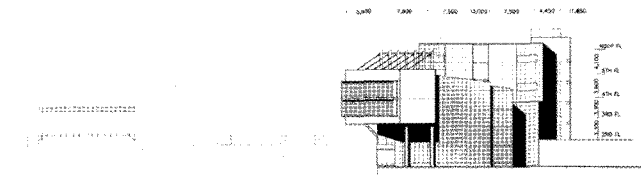


그림 21.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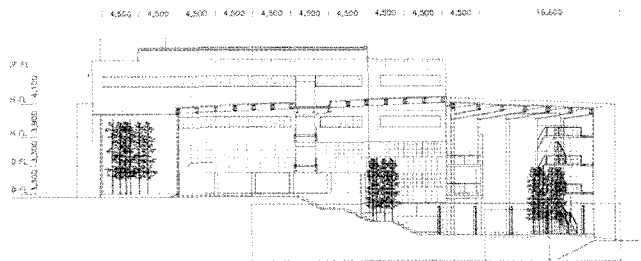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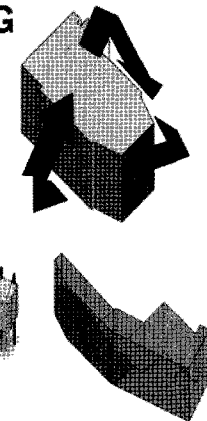


그림 22. 단면도

REMODELING

EXTENTION



ATRIUM

그림 23. 리모델링 공간구성